

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5개 지자체 사업제안... 12월 선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, 서울특별시·부산광역시·인천광역시·대전광역시·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‘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’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(1.25)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,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.
 - 이어 도시·금융·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(4월)하여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,
 -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(6월)하고,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.
-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(연계노선 포함 34.7km)과 경원선(연계노선 포함 32.9km), 부산광역시 경부선(11.7km), 인천광역시·경기도 합동 경인선(22.6km),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, 경기도 경부선(12.4km)과 안산선(5.1km)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시·금융·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,
 -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평가 등을 거쳐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 계획의 타당성,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,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월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내년 5월까지 2차로 사업을 제안받아, 전국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사업을 '25년 말까지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.

담당부서	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송천	(044-201-3950)
		담당자	팀 장	박선동	(044-201-4390)
			사무관	신우철	(044-201-4391)
			사무관	유찬호	(044-201-4395)
			주무관	임태호	(044-201-439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